-자막 2013년6월 과거로 돌아 갈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개발되었다.

그 앱을 개발한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모습.

#1 <집으로가는길~집>

어딘가를 걷고 있는 누군가.. 민기다.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음악을 흥얼거리며 걷는다. 두 손은 먹을 것 한 가득이다.

민기 : 아..어제 괜히 엄마한테 짜증내서 죄송하네… 진짜 이제 엄마한테 잘 할거야!

자신의 집 앞에 멈춰서는 민기. 문을 연다. 그런데 문이 잠겨있다.

민기 : 어? 엄마 아직도 주무시나? 아..어제 엄마한테 화내고 친구집 가서 자는게 아니었어..

민기 : (열쇠로 현관문을 연다)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엄마를 찾으며)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엄마~ 엄마 어딨어?

거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는다.

민기 : (방문을 열며)엄마 여깄어?

(화장실 문을 열며) 엄마 여깄지?

(화장실 문을 닫고) 아..엄마 어디있는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민기. 방문을 열자 농약병이 뒹굴고, 농약이 쏟아져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엄마를 발견한다.

민기 소리치며 엄마를 일으켜 깨우지만, 엄마 이미 숨을 거둔 상태이다.

민기 : 엄마! 엄마 일어나봐,, 엄마.. 나 엄마 주려고 엄마가 좋아하는거 많이 사왔어.

(죽을걸확인)…..엄마 나 아직 엄마한테 죄송하단 말도못했는데… 아직 감사하다고….. 또 사랑한고도 못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가버리면.. 그럼 난? 나 혼자서 어떻게 살라구... 엄마 일어나봐.. 엄마..

민기 울면서 엄마가 일어나길 바라며 엄마를 깨우지만, 엄마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순간 민기 엄마 옆에 놓여있는 있는 일기장을 발견한다. F.o

#2 <현재집>

일기장 첫 장 -2013년 10월 5일-

과거로 돌아가는 스마트폰 이라니! 드디어 그를 만나러 가게 되는구나.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내 남편….. 궁금하다.

타이틀이 WHITE OUT

민기 과거 회상장면으로 바로 진행.

방안에 축쳐져 걸레질을 하고 계시는 엄마. 민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민기: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앉아 봐. 이제 그만 슬퍼해 .

(스마트폰을 건네며) 자, 여기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 이제 보러갈수 있어.

엄마: (눈이 휘둥그레 지며 기뻐하는모습) ………. 그게..무슨 말이니?

민기: (조작법을 가르쳐 주며) 봐~ 여기 이렇게 통화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엄마가 가고싶어 하는 연도랑 날짜 누르고 통화버튼 누르잖아? 그러면 그 날로 돌아갈수있어. 진짜 짱이지! 엄마 이제 기운내라구 내가 이거 생기자마자 다운받았어~~ 나 잘했지?잘했지??

민기 엄마 어깨에 기대며 웃는다. 엄마 그런 민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다.

(회상이 끝나고 WHITE IN)

다시 현실로 돌아와

일기장 두 번째 장을 펼친다.

-1990년 11월 3일-

곧 있으면 우리 아들 민기가 태어난다. 과연 나는………..우리 민기에게 화목한 가정을 지켜 줄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드는 민기. 민기는 엄마의 일기장에서 엄마의 불안함을 보았다.

민기는 과거로 돌아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해 보기로 결심한다.

민기: 도대체 엄마는 왜.. 내 곁을 떠난건데…또 일기장에 적혀있는 엄마는 왜이렇게 불안해 하는거냐구….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민기 스마트폰을 쳐다본다. 그리고 책상에 놓여져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조심스레 1990년 11월3일의 날짜를 누른다

2장

#3 <공원>

1990년 11월 3일

과거로 돌아간 민기 (1990년 당시 모습을 보여준다. 옷차림 등) 민기는 과거로 오자 처음에 신기해 하며 어떨떨한 모습을 보여준다.

민기 :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보며)와..진짜 과거로 온거야??

그때 민기, 민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엄마: (배를 쓰다듬으며) 민기야….. 민기야.. 넌 엄마가 꼭 지켜줄꺼야. 우리민기.. 사랑한다!

바로 자신의 엄마였다.

민기는 차마 엄마에게 말을 걸지 못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를 미행한다.

#4 <과거 집>

아버지: (현관문을 열며) 나 왔어 여보!

엄마: 왔어요 여보~ 앉아요 저녁상 차려놨어요.

아버지 : (엄마의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민기~ 아빠왔어요~~~

엄마 : 어머 당신도~ 어서 옷갈아 입고 식사하세요~

그 모습을 창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민기.

민기: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구나…….

#5 <과거 집>

일기장 1990년 12월 5일

항상 나와 민기에게 잘 해주는 그이. 하지만… 갑자기 돌변하는 그의 태도는 나와 민기에게.. 지울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준다…………….

민기를 자상하게 돌보는 아버지 그런데 갑지기 태도가 변한다.

아버지: 우리민기 그랬어요?? 아구구 이뻐~~ 까꿍까꿍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누구 허락 맡고 싸지른 거야?

(엄마를 쳐다보면서) 누구 허락 맡고 싸지른거 냐고

하. 말안해? 말안해??

아버지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한다.

엄마 : 여보..왜 그래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물어? 어? 당장 저 애새끼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당장!!

엄마 : 여보……

아버지 : (엄마에게 민기를 안겨주며) 꺼지라고!!!!

충격에 휩싸여 귀를 막고 그 자리에 쭈그려 앉는 민기.

아버지 엄마와 민기를 쫓아내고 나자 머리아파한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며 먹고 진정한다.

#6 <집에서 >

다음날 아침

아버지 자고 있는 엄마를 깨우며 그때 엄마의 얼굴엔 멍자국이 선명하다.

아버지: (부축하며) 아침이야 일어나~

엄마: (겁에 질린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

아버지: (궁금해 하는 표정) 갑자기 표정이 왜그래? 어?? 이 멍은 뭐야???? 누가그랬어?? 당신을 누가????

엄마 : (소근거리며)당..당신이..

아버지 : 뭐???? 뭐라고??? 크게말해봐 누가그랬어?? 어떤 놈인지 말만해.

엄마 : 아..아니예요…민기가 장난감으로 장난치다가 그런거예요..

아버지 : (안심하며 웃는다)아 그런거야?? (민기를 바라보며)이노무자식!! 엄마를

그럼 여보 일어나 내가 오늘 우리 여보 맛있는거 사주려고~ 뭐먹고싶어?

엄마 : (방백) 저이는.. 어제 한일을 기억 못하는 건가??......

#7 <식당안>

화기애애한 모습. 아버지는 엄마에게 먹을것도 먹여주고, 우는 민기를 다정하게 달래준다.

아버지 : 여보 아~!~~ 아이고 잘먹는다 맛있지???

엄마 : 당신도 많이드세요.~

그때 민기가 운다.

아버지 : (자상하게 우는 민기를 달래며) 우르르까꿍 민기야~ 민기야~~ 울면 저기 아저씨가 와서 이놈~ 한다~ 뚝 우리민기 뚝~

#8 <현재집>

민기 일기장 다음 장을 넘긴다. 1990년 12월 24일은 일기장에 내용이 없다.

민기 : 어?? 왜…날짜만 적혀있고.. 아무것도 안써있지??

#9 <과거 집>

거실에 누어 잠을 자고 있는 엄마. 아기 민기도 옆에 잠들어있다..

부엌에서는 아버지가 흥분된 표정으로, 이상한 웃음 소리를내며 분유에다가 수면제를 타고 있다. 이상한 웃음 소리에 잠에서 깬 엄마.

엄마: (눈을 비비며) 어~ 당신 언제 왔어요?

아버지: 어 방금 왔어. (민기를 찾으며) 민기야~ 민기 밥 먹어야지?

엄마: (잠결에) 무슨…밥???

아버지: 내가 민기주려고 분유타왔지~.

엄마: (잠결에) 어…그래…. 근데 민기 자는데…?(갑자기 정신 차리며) 잠깐! 그 젖병 나 줘봐요.

아버지: (놀라며)왜???

엄마와 아빠는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부엌 가까이 오게 된다.

엄마 : 당장 그 젖병 줘보라구요

아버지 : 뭘 줘 아빠인 내가 애 분유하나 맘대로 못 먹이냐?

엄마 : 그런데 왜 화를 내요? 당신 무슨 짓 했죠?

아버지 : 야 내가 무슨 짓 을해? 야 너 미쳤냐?

아버지는 엄마를 밀치고 민기에게로 가 젖병을물리려한다.

엄마 넘어지면서 바닥에 수면제 봉지를 발견한다. 엄마 놀라며 민기에게 젖을 물리려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부엌에서 칼을 빼 든다.

엄마 : (위협하며) 당신!!!!!!!!

아버지 : (깜짝놀라 엄마를 쳐다본다)

엄마 : 민기한테서 물러나요 당장…

아버지 : 안 물러 나면 어쩔 건데?

엄마 : 찌…찔러버리겠어요..

아버지 : (비웃으며) 니가? 찌를테면 찔러봐

아버지는 엄마의 위협에 아랑곳 하지않고 민기의 입에 젖병을 물리는 순간.

엄마는 아버지를 찌른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아버지. 결국 죽는다.

엄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두려운 나머지 집에서 도망쳐 나온다.

꽤 많은 거리를 달려온 엄마. 길 한가운데에 멈춰선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충격을 받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10 < 현재 집>

자막: 어머니가 죽기 전 당일

엄마 방 안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다. 그때 먼지에 덮여있는 박스를 열어 과거 자신의 일기장을 찾아낸다. 엄마는 일기장을 미친 듯이 읽어 내린다. 일기를 읽고 충격을 엄마. 엄마의 머릿속엔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그리고 결심한듯 장롱에서 농약을 꺼내들고 마신다.

엄마 쓰러지는 동시에 민기가 문고리를 딸칵딸칵 여는 소리가들린다.

3장

#11 <현재 집>

스마트폰과 일기장을 나란히 놓고 멍하니 바라본다.

민기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유리창으로 던진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바람이 일기장을 넘긴다. 네잎클로버가 끼워져 있는 일기장의 한 부분이 펼쳐진다. 엄마 나래이션이 흐른다. 민기 일기장을 읽으면서 오열한다.

나래이션: (엄마목소리) 민기야. 10달동안 엄마뱃속에 있느라고 힘들었지? 엄마도 이제 곧 우리민기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이고 기분 좋다. …우리 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니깐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마음씨까지 예쁘겠지??? 엄마는 정말 이렇게 큰 선물 받아도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빨리 우리 민기 태어나면 엄마가 싼 도시락 들고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또 단풍구경도 가구~ 재미있는 썰매도 타러가자~ 사랑하는 민기야~ 그동안 아무탈 없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건강하게 엄마 만나자?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아들 사랑하는거 알지? 사랑한다 우리아들!

민기: (눈물을 흘리며)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난 없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엄마는 행복해 졌으면 좋겠어.

일기장을 부여잡고 펑펑운다.

#12 (어떤 낯선 집)

엄마 낯선 남자와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옆에는 민기가 아닌 다른 아이가 있다.

영화 끝 -